

순국 특별 초대석 | 만나고 싶었습니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전남 지자체 합작으로 2018년 문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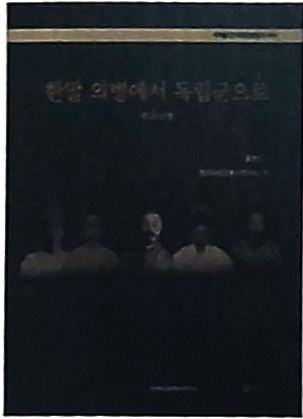
국내 3대 국학진흥기관 위상 정립 목표 여건 열악, 독립청사 확보와 예산·인력 확충 시급 “호남한국학 연구·진흥에 혼신의 노력 다할 터”

홍영기 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024년 1월 15일 제3대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홍교수는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호남사학회 부회장,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서훈심사위원 등을 지내고, 전남도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한제국기(한말) 의병 연구 전문가로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한말 후기의병』,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등 여러 저서를 발간했으며, 지리산권 문화 연구, 근현대 문화유산 등 호남한국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장은 그동안 본지에 의병 관련 글을 수차례 기고했을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유족회 의병 후손 임원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근래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취임 두달을 맞은 홍영기 원장을 만나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련 업무와 의병 연구, 독립운동사 등 관련 대답을 진행하였다. 대답은 3월 21일(목) 오후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홍영기(洪英基)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은 1957년 광주시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거쳐 1994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순천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동안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장, 지리산권문화연구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호남사학회 부회장, 노사학연구원장,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6월 의암대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호남의병열전』(상상창작소 북, 2019), 『황현-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역사공간, 2018), 『한말 의병에서 독립군으로-후기의병』(선인, 2017), 『여순사건자료집』1~4(편저, 선인, 2001~2015),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일조각, 2004), 『전남동학농민혁명사』(전남대출판부, 199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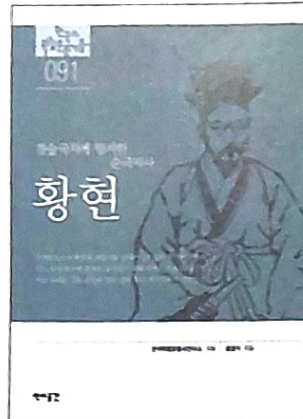
인터뷰 | 장세운 월간 「순국」 편집주간
글·사진 | 편집부(사진은 언론사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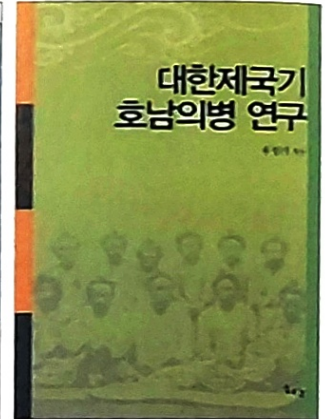
홍영기 원장의 저서 「한말 의병에서 독립군으로-후기의병」



「호남의병열전」



황현-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주요 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개설 홈페이지에서 주요 사업으로 ①국학자료 수집·보존(조사·수집 정리·보존), ②호남 문헌 국역 및 편찬(국역 및 편찬 문헌 해제), ③국학자료 정보화(호남 국학 종합DB, 고문서 정서 및 역주), ④호남학 연구 및 활성화(연구 보급 지원)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시라고 요청했다.

“먼저 국학자료 수집·보존과 관련해서는 호진원의 주요 목적이 멸실·훼손·도난 위기에 있는 종가나 문중 등 민간이 소장하는 고문헌 및 서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연구, 활용 등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료 수집과 보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 7만여 점의 자료를 수집, 정리중입니다. 올해도 노사(기정진) 종가 문서 약 3천점 이상을 기탁받는 등 5천여 점 이상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천(梅泉) 황현(黃玑) 선생 초상화 등 보물 3점, 등록문화재 91점, 광주·전남 시·도문화재 1,955점 등 22건 총 2,049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홍원장의 활달한 답변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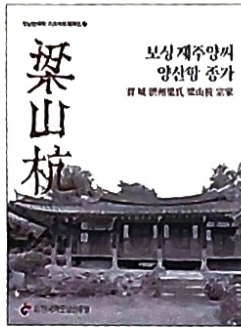
“두번째 사업인 호남 문헌 국역과 자료집 간행 사업의 경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핵심사상이 담긴 「답문류편」 등 국역서 34권, 호남권 근대 문집 정의림의 「일신재집」, 이병수의 「검산유고」 등 표점 영인본 13권을 냈습니다. 또 행주기씨 금강문중 등 기증·기탁한 자료해제집과 향약 자료집 등 24권,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등 고문서 역주본 3권, 『호남문화 인문기행』(이종근) 등 저술지원총서 13권 등 총 94권의 책을 발간했지요”

근래 잘 들어보지 못한 호남출신 일부 명사들의 이름과 저술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호진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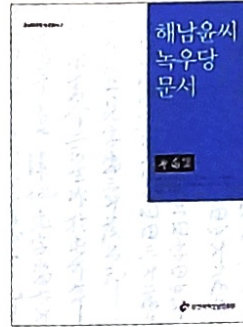
“올해도 박상·송순·김인후·고경명·김덕령 등 15~16세기에 호남을 빛낸 인물들이 남긴 문집을 번역하고 간행할 예정입니다. 또 향약·동계(洞契) 및 누정(樓亭)·원림(園林)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여 간행하려고 해요. 특히 향약·동계, 누정·원림 자료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고 광범하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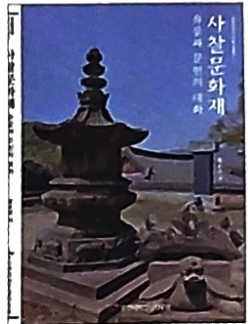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 발간 자료집과 연구서. 『향약자료집 『보성 제주양씨 양산향 성』(광주일보 제공)



『향약자료집 『보성 제주양씨 양산향 증가』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사찰문화재』(이상 한국학 호남진흥원 제공)

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홍원장은 호진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정리, 보존과 아울러 주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호진원은 교육사업으로 고문헌 국역강좌, 호남한 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 주요 행사로 ①남도정 신문화 계승 확산, ②한말 남도의병 유적지 실태조사(3년차), ③학술대회, ④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홍원장은 ‘의향(義鄕) 남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도의병박물관’의 자료 축적과 전시컨텐츠 개발을 위해 호남의병 자료 및 유적지 실태조사(3년차)를 진행중인데, 광주·전남은 이미 완료했고, 올해는 전북 지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상당히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는 호진원에서 호남권 대학의 유관기관이나 연구소, 문화원 등이 ‘호남학’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면서, 매년 약 10개 전후 단체나 기관을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매년 2~4개 호남인문학 관련 공개 대중강연을 실시해서 유명 인문학자의 명강의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민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육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 가운데 혹시 홍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주요 사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최근 언론 보도상으로는 올해 호남의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사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궁금했다.

“호남은 옛부터 ‘미향(味鄕)’이라 하지만, 호남지역 음식조리서가 별로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호진원에 기탁된 나주의 풍산홍씨 종가 자료에서 『음식보』라는 조리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구·재현·체험하는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예향 호남”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서화가(書畫家)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화가 열전이라든가 다양한 활용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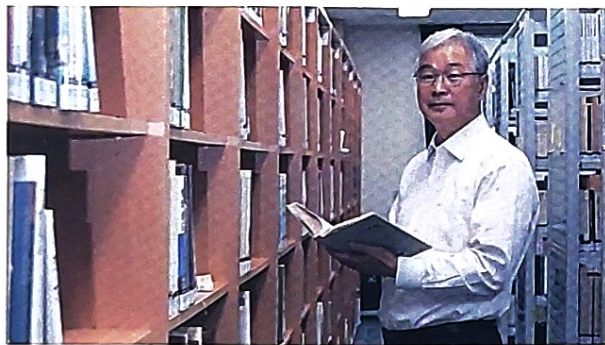
이 설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입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1월 8일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 3대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실에서의 홍원장

한국학호남진흥원, 3대 국학진흥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호남학'을 진흥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호진원은 호남권의 종가와 명문가, 그리고 서원과 사우(祠宇) 등에 소장된 고문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자는 물론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역사를 빛낸 호남의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홍원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호남의 다양한 기록유산, 예컨대 일기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널리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호남학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누정·원림(園林) 및 향약 관련 문화자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리 연구를 심화하고, 민족문화의 균형발전과 호남한국학의 전통을 미래로 잇는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원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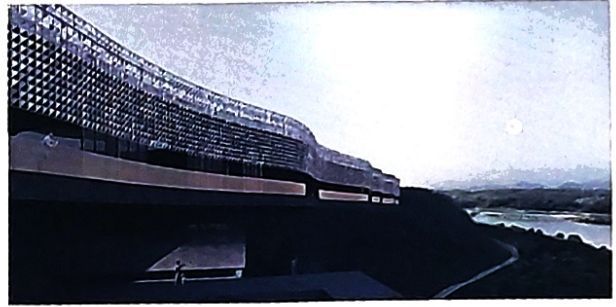
이에 홍원장께 재임기간 중에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련 중장기 구상이 있는지 물었다.

“호진원을 3대 국학진흥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직과 시설, 사업 등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남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른 바 '의향·예향·미향'으로서의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호남권 고문헌 자료뿐 아니라 서화·사진·영상·도판(圖版) 등 근현대 시기의 다양한 자료를 발굴, 수집, 보존하여 호남학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입니다.”

홍원장은 이를 위해 오로지 기증으로 특화된 '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라남도 제공).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홍영기 원장.



전남도에서 건립 중인 '남도의병박물관' 조감도(전라남도 제공)

남학도서관'의 기반을 구축하며, 호남학도서관을 시·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현재 호진원의 예산과 시설, 연구인력 등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했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예산이 약 400억(안동시 19억, 경북 54억 출연금)인데 반해, 호진원은 광주·전남이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출연했다고 한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약 23억원)를 확보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다. 듣고보니 확충이 시급해 보였다.

특히 보다 나은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청사가 시급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호진원은 광주시 중심가에서 떨어진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인재교육원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대표적 국학진흥기관 5개(앞의 2개 기관 외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울곡연구원(강릉), 한국유교문화진흥원(논산) 중에 호진원만 독립 청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전남 지자체에 독립 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출연금 증액과 인력증원을 요청 중에 있다고 했다. 홍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난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른 바 '3대 국학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30여 년이 넘는 동안 교육자·학자로서, 또 연구행정가로서 한 길을 걸어온 홍원장의 포부는 매우 야심차며 그럴만한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제 홍원장이 임기동안 그 밑바탕을 깔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사업 참여

지난 3월 5일 전라남도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설명회'를 열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2,45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2022년 10월부터 역점 추진한 독립운동 미서훈자 2단계 발굴사업 결과 총 2,456명을 발굴하여 전남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했다고 한다.

이 사업에 홍원장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호진원에서도 전라남도의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 또는 협력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사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전남이 독립

유공 미서훈자 발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저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단계에 3·1운동 미서훈자 발굴을 시작해서 결국 20여 명 이상 서훈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한말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미서훈자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저는 1~2단계 모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다만, 2단계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했던 한말 호남의병 미서훈자 발굴사업과 중복된 면이 있고, 다른 운동계열의 경우에도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서훈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안타까웠지요. 좀더 시간을 길게 잡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추진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호진원 사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의병, 독립운동 전공 학자라 지역사회나 지자체의 관련 현안 사업에 중요한 임무를 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병·독립운동사 연구 진작방안 강구 필요

홍원장은 한국근대사, 독립운동사, 특히 의병연구 전문가로서 한국사 연구·교육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런데 근래 육군사관학교 구내 ‘홍범도장군 홍상이전’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더욱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병 연구가 침체되고 있고, 근래 이 시기 의병 연구자가 별로 없는 듯하다. 의병 연구자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홍원장께 의병 연구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조언

을 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역사학계의 독립운동사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당장 현실적 방안으로 국가보훈부나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이나, 독립기념관·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공공기관·단체의 학예실 또는 부설 연구소, 연구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 등이 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의병이나 독립운동사, 역사·문화 관련 총수요가 있어야 연구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여러 기관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 분야별 협업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광주시에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역사민속박물관·시립미술관·김치박물관 등의 수장고 포화 해소와 문화인프라 개선, 문화자원 보존·연구 기능 고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증전 남도가 부지를 제공하면 시설은 광주시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두 광역지자체가 서로 협력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점증하고 있는 한국학이나 ‘한류’ 관련 역사문화나 한국어문학 등 관련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원장은 전남도의 경우 ‘남도의병박물관’을 건립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의병연구자의 증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다른 지역도 관련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건립·운영한다면 연구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

구자도 증가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설득력있는 답변이었다.

호남 관련 콘텐츠 보급·확산으로 호남인 자긍심과 정체성 드높일 것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과 한국인, 한국의 역사나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호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호남인이나 호남의 역사문화, 호남 어문학 관련 자료 등 호남관련 콘텐츠의 보급·확산 등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혹시 관련 사업이나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다.

“대중적 인문학 강좌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사이버 강좌를 통해 호남인이 추구한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정의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승고한 투쟁·활동의 역사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봐요.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가치를 조명하는 방향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지역이 ‘케이 컬처(K-culture)’에 끼친 판소리, 근현대 서화 등 예향 호남의 문화적 원형과 본고장임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호남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끝으로 홍원장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해 강조하고, 실현하고 싶은 핵심적 내용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호진원을 호남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미래로 잇는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비롯한 시·도민들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문화를 누리며



2023년 11월 24일 열린 제9회 국학자료 기증·기탁식 모습(한국학호남진흥원제공)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이면서 추상적입니다만, ‘남도’의 개방성은 ‘땅끝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요. 자랑스러운 자산, 즉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교차점인 땅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은 문화나 문명의 교류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호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자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발전이 곧 의향·예향·미향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광주시와 전남도민들께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3월 하순에 접어드는 광주의 오전 날씨는 아직 차가웠다. 그러나 곳곳에 산수유와 개나리, 목련 등이 싹이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개원 7주년을 맞는 신설기관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앞길은 아직 멀어보였다. 그러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독특하면서도 매력있는 특유의 호남문화를 꽃피운 호남인들처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미래 역시 밝을 것이다. 호남을 벗어나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각지로 그 메아리가 울려퍼질 것으로 믿고 싶다.

이제 홍영기 3대 원장 취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기원하면서 멀리 광주의 진산 무등산이 보이는 진흥원 정문을 나섰다. **순국**